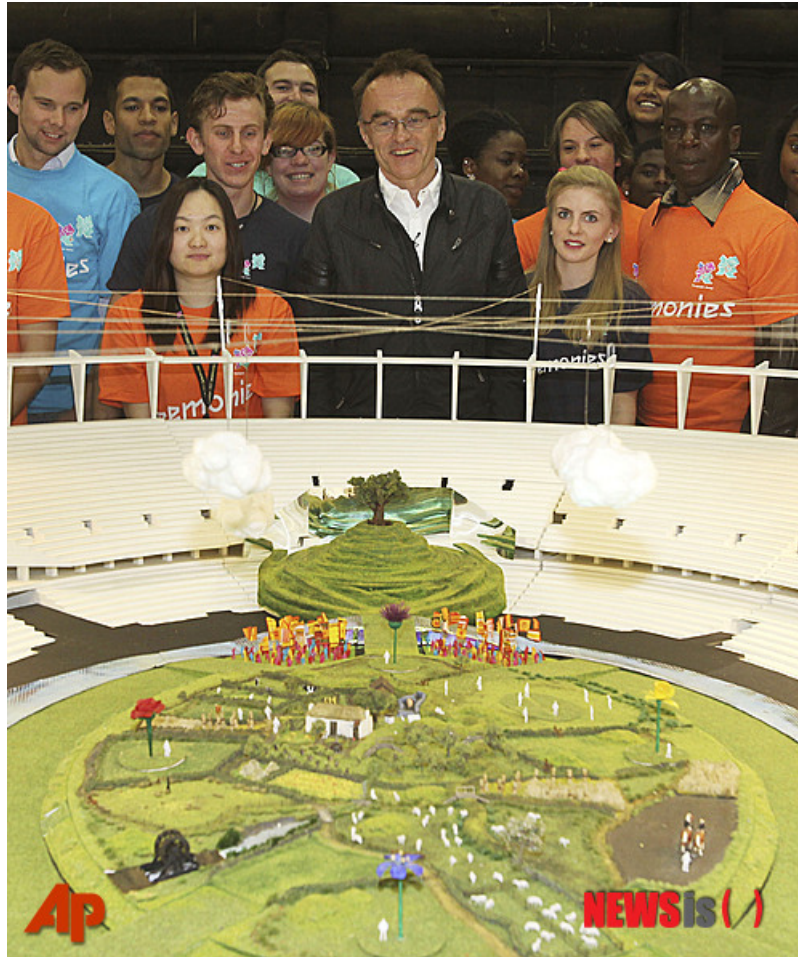


## [런던2012]베일 벗은 개회식 운곽 '英 산업화를 한 눈에'

등록 2012.07.24 08:51:16 | 수정 2016.12.28 01:00:24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2012런던올림픽 개회식의 운곽이 영국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3일(한국시간) '우리가 대니 보일의 개회식 행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림픽 개회식의 진행 과정을 소개했다.

런던올림픽 개회식은 영화 '슬럼독 밀리어너'로 2009년 제81회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수상한 대니 보일(56·영국) 감독이 총 지휘를 맡고 있다.

보일 감독과 행사 관계자들은 개회식의 사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회식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해가며 보안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텔레그래프는 그간 취재해 온 요소들을 조합해 3시간 분량의 개회식 행사 시나리오를 일반에 공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이로운 영국(Isles of Wonder)'

런던올림픽 개회식의 주제는 '경이로운 영국'이다. 이 주제는 영국이 낳은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더 템페스트'의 대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개회식은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5시) 23톤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종(鐘)이 울리면서 시작된다.

개회식의 총 진행시간은 2시간30분에서 3시간 사이이며 예상 종료시간은 자정이다. TV시청 인원은 전 세계 약 40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 준비를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은 2700만 파운드(약 482억원)이며 제작된 무대 의상은 2만5000벌이다.

공연에 동원된 인원은 1만5000여명(런던 동부 25개 학교에서 선발한 어린이 1650명 포함)이다.

#### ▲1막-푸름과 유쾌함(Green and Pleasant)

'007 제임스 본드' 스타인 다니엘 크레이그(혹은 대역을 맡은 스텐트맨)는 헬리콥터에서 런던올림픽주경기장으로 하강한다. 동시에 27톤 짜리 종(鐘)이 울리면서 개회식의 시작을 알린다.

대형 종에는 더 템페스트에 나오는 대사인 "두려워 말라. 영국이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찰 것이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영국의 영화배우 겸 감독인 케네스 브래너가 이 구절을 낭독한다.

무대의 배경은 언덕과 강, 목초지 그리고 초가집이 어우러진 영국의 과거 시골이다.

말 12마리, 소 3마리, 양 70마리, 목양견 3마리 등 살아있는 동물들과 우유를 짜는 여자아이, 소풍을 나온 가족들, 에드워드인 마을의 크리켓 팀 선수들이 메이플(5월 봄맞이축제 때 광장에 세우고 꽃이나 리본 등으로 장식하는 기둥) 주변에서 춤을 춘다.

주경기장 양쪽 끝에서는 무도회와 청중들의 파티가 펼쳐진다. 보일 감독은 여기서 비와 구름의 특수효과를 사용한다.

배경음악으로는 영국의 국민적인 애창곡으로 불리는 엘가의 '희망과 영광의 나라(Land of Hope and Glory)'와 록밴드 잼의 '고잉 언더그라운드(Going Underground)' 그리고 반젤리스의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등이 사용된다.

#### ▲2막-악마의 맷돌(Dark Satanic Mills)

주경기장은 산업혁명 시기로 바뀐다. '악마의 맷돌'은 영국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는 맹목적인 '산업화'를 빗대어 표현한 관용어다.

광부, 제철소 노동자, 직공, 기술자 복장을 한 연기자들은 세계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과거 모습을 묘사한다.

리오넬 바트의 '푸드 글로리어스 푸드(Food Glorious Food)'와 롤링스톤즈의 '새티스팩션(satisfaction)' 그리고 섹스 피스톨즈의 '프리티 베이컨트(Pretty Vacant)'가 배경 음악으로 쓰인다.

#### ▲3막-미래를 향해(Towards The Future)

3막은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변화를 주제로 한다. 영국 국회의사당의 대형 시계탑인 '빅 벤(Big Ben)'과 영국을 대표하는 다양

한 상징물들이 등장한다.

춤을 추는 간호사들과 보조직원들이 병원 침대를 밀고 나가는 모습을 통해 복지국가 영국의 국민의료서비스(NHS)를 과시한다.

연기자, 뮤지션, 배우 그리고 곡예사들은 요동치는 창조의 도래를 축하한다. 비틀즈의 '서전트 페퍼스 론니 하트 클럽 밴드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스타일을 한 댄서들이 헌정공연을 펼친다.

1만2000여명의 댄서, 드러머, 스케이트보더, 곡예사 그리고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 에멀린 팬크허스트와 1948년 엠 파이어 러시호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온 카리브 이주민들의 복장을 한 연기자들이 등장한다.

다른 연기자들은 영국의 다문화와 반전시위, 노동쟁의 등 정치적 격변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배경음악으로는 '프랭키 할리우드에 가다(Frankie Goes to Hollywood)'의 '릴렉스(Relax)'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발라리 (Valerie)'가 사용된다.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는 짧은 영화에는 아이들이 등장해 '전능하신 여호와여(Cwm Rhondda)'와 '대니 보이(Danny Boy)'를 열창한다.

개회식의 마지막은 비틀즈 멤버 폴 메카트니의 '헤이 주드(Hey Jude)'가 장식한다.

#### ▲개회 선언과 후속 행사

보일 감독의 비밀스런 작품이 모든 베일을 벗고 나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세바스찬 코 런던올림픽조직위원장과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영접을 받아 주경기장에 들어선다.

참가국들도 주경기장에 입장한다. 그리스가 가장 먼저 운동장에 들어서고 뒤이어 알파벳 순으로 올림픽 참가국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영국단일팀(Team GB)이 마지막으로 입장한다.

코 위원장과 로게 위원장의 연설이 끝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회를 선언한다. 올림픽기가 주경기장에 들어오고 영국 국가가 연주된다.

성화가 경기장 안으로 봉송되면 마지막 주자가 점화를 하고 경기장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이날 개회식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두 딸을 데리고 미국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노사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세계 120여개국의 지도자들이 자리를 빛낸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 데이비드 베컴 등 유명인들도 개회식 현장을 찾는다.

lkh201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